

박태환 값진 '금빛 역영'

범태평양수영 남자 자유형 400m 아시아新
 50m 정규코스 국제대회서 사상 첫 금메달

세계 기록	아시아 한국 기록	아시아 기록	한국 기록
이민 소프 (호주/2002년) 3분40초06 -5초64	박태환 (한국/2006년) 3분45초72 기준	마츠다 다케시 (일본/2005년) 3분47초28 +1초56	박태환 (한국/2009년) 3분48초71 +2초99

한국 수영의 '대들보' 박태환(17·경기고)이 50m 정규코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다.
 박태환은 20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펼쳐진 2006 범태평양 수영대회 셋째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5초72에 물살을 갈라 우승했다.
 한국 수영 선수가 정규코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박태환이 처음이다.
 박태환은 이로써 마츠다 다케시(일본)가 지난해 7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아시아신기록(3분47초28)을 갈아치웠으며 자신이 지난해 동아시아대회에서 세웠던 3분48초71의 한국 기록도 1.99초 앞당겼다.
 또 지난 18일 대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박태환은 자신의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결국 금메달까지 차지하며 세계적 스타로 우뚝 섰다.

특히 박태환은 이날 세계수영연맹(FINA) 랭킹 1위인 클레트 켈러(미국)와 3위 피터 반더카이(미국), 10위 마츠다 다케시(일본), 10위 장린(중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모두 꺾고 우승,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가능성도 밝혔다.
 예선에서 3분50초41로 1위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우승을 예고한 박태환은 예선 성적 1~8위가 겨루는 결승(A파이널)에서 4번 시드를 받아 0.74초의 빠른 출발 반응을 보이며 힘차게 물살을 헤치기 시작했다.
 200m 지점까지는 1분52초08로 켈러(1분51초45)와 장린(1분52초32)에 뒤진 3위로 헤엄치던 박태환은 250m 지점에서 2분20초97로 장린(2분21초22)을 따라잡으며 켈러(2분20초69)를 바짝 뒤쫓았다.
 이후 켈러에 이어 페이스를 조절하던 350m 지점을 선두 켈러(3분18초40)에 0.32초 뒤진 3분18초72에 탄한 박태환은 마지막 50m에서 아껴놓았던 힘을 분출하며 불속 앞서나갔다. 박태환은 결국 2위 장린에 무려 1.35초나 앞선 3분45초72로 터치 패드를 건드렸다.
 한국 수영 사상 첫 정규코스 국제대회 금메달을 거머쥐는 순간이었다.
 남자 자유형 400m 세계신기록은 호주의 수영 영웅 이민 소프가 2002년에 수립한 3분40초08이다. 소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박태환이 20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열린 범태평양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부문에 출전,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톱10 진입

선두 우즈와 5타차 7위
 PGA 챔피언십 3R



최경주가 20일 일리노이주 메디나 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3라운드 14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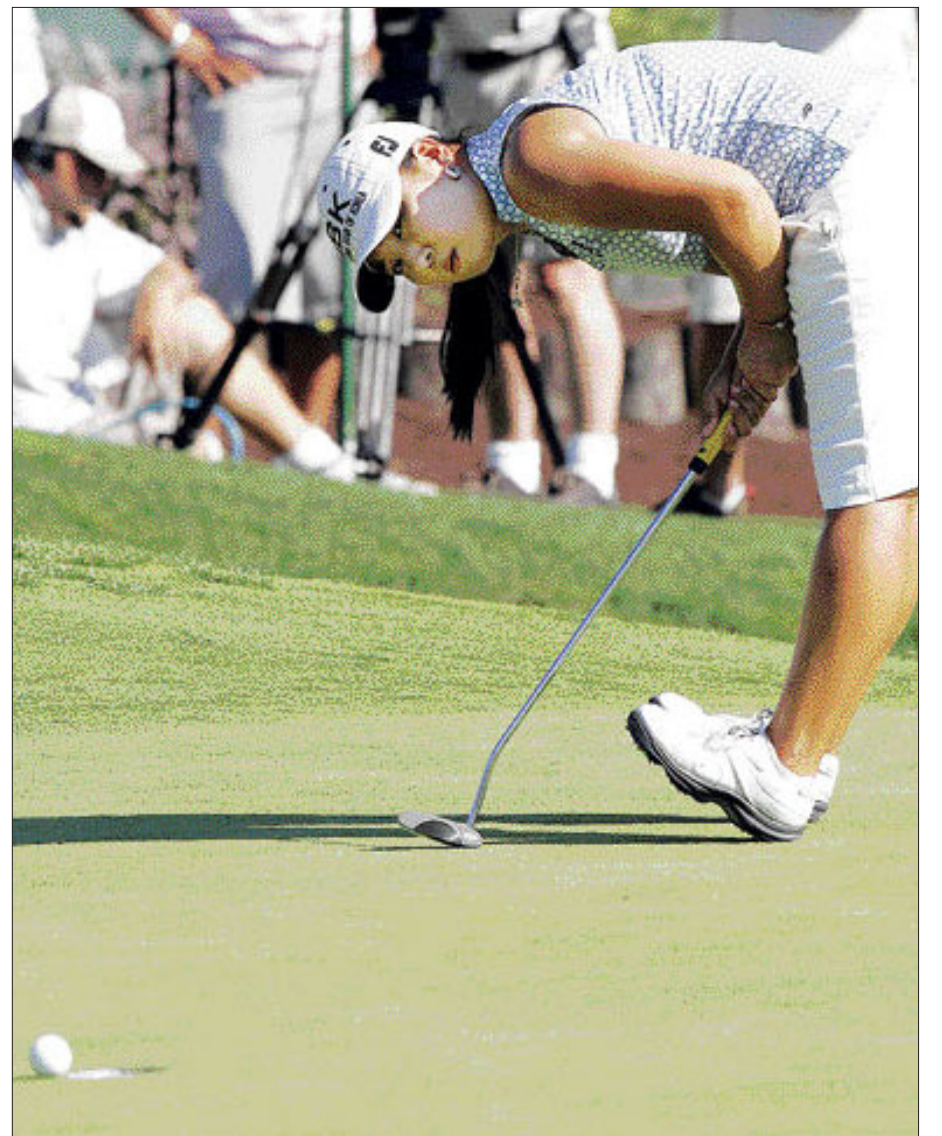
이달 말 귀국을 앞둔 '탱크' 최경주(36·나이지리아)가 미국프로골프(PGA)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에서 '톱10' 입상에 성공 다가갔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코스레코드를 세우며 공동선두에 올라 메이저대회 2연승에 푸른 신호등을 켰다.
 최경주는 20일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의 메디나골프장(파72·7천56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뽑아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가 된 최경주는 공동선두 타이거 우즈(미국),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이상 202타)에 5타 뒤진 공동 7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첫날 부진으로 하위권으로 처졌던 최경주는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고 이날도 선전을 이어가 앞서 열린 3차례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컷오프 당한 수모를 씻어낼 기회를 만들었다.
 1번홀(파4)을 버디로 기본 좋게 경기를 시작한 최경주는 4번(파4), 5번홀(파5) 연속 보기로 주저 앉는 듯 했지만 6번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분위기를 바꿨다.
 9번홀(파4) 버디로 깨먹은 타수를 만회한 최경주는 10번홀(파5)에서도 버디 퍼트를 잡아넣어 기세를 올렸다. 12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인 최경주는 14번(파5), 15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리드보더 첫 페이지에 이름을 올렸고 남은 3개홀을 파로 막아내 최종 라운드를 기약했다.
 브리티시오픈에서 생애 11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거머쥔 데 이어 뷰익챔피언십에서 시즌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황제'의 위용을 유감없이 펼쳤던 우즈는 이날 7언더

파 65타로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우며 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로 마침내 순위포 맨 윗자리를 꿰찼다.
 우즈는 지금까지 PGA 투어 대회에서 3라운드에서 공동선두로 나섰을 때 단 3차례만 우승을 내졌을 뿐이며 특히 메이저대회에서는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은 11차례 대회

에서 모조리 우승을 차지했다.
 한번 먹잇감을 물면 놓치는 법이 없는 '역전 불허'의 명성을 쌓아온 우즈는 더구나 메이저대회 우승은 커녕 투어 대회에서도 2승에 불과한 도널드를 상대로 최종 라운드를 치르며 '우승 세리머니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정 "시즌 2승 보인다"

7언더...3명과 공동선두
 LPGA 세이프웨이클래식 2R



장정이 20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벌어진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2라운드 18번홀에서 자신의 퍼트가 홀을 살짝 빗나가지 아쉬워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작은 거인' 장정(26·기업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클래식 둘째 날 공동 선두에 올라 시즌 2승의 기회를 잡았다.
 장정 20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골프장(파72·6천327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합계 7언더파 137타로 '투기' 모건 프레셀(미국), 캔디 콩(대만) 등 3명과 공동 선두를 형성했다.
 장정은 7번홀부터 4개를 연속 버디를 낚아채는 등 버디는 6개를 잡고 보기는 2개로 막아냈다.
 지난 6월 웨그먼스LPGA 우승컵을 거머쥘면서 생애 2번째이자 시즌 첫 승을 거머쥔 장정은 작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털겠다는 각오다.
 이날 4타를 줄인 한희원(28·윌라코리아)과 2타를 줄인 김주미(22·하이마트), 재미교포 김초롱(22)이 합계 6언더파 138타로 1타차 공동 5위를 형성하면서 선두를 뒤쫓았다.
 이에 따라 한국 선수가 3차례나 우승한 이 대회에서 또 한 차례 우승과 함께 '한국 군단'이 시즌 10승을 쟁길 가능성도 커졌다.
 1라운드에서 7언더 버디를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에 나섰던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은 이날 갑작스런 샷 난조로 3타를 잃어 합계 5언더파 139타로 선두와 2타차 공동 11위까지 추락했으나 여전히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는 지켰다.
 10번홀을 출발한 이지영은 후반 첫번째 홀까지 2타차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3번홀 보기에 이어 5~8번홀에서 더블보기와 보기를 잇따라 범하면서 내리 6

타를 잃었고 마지막 9번홀에서 겨우 버디를 잡아냈다.
 이지영은 버디 5개를 뽑아냈으나 보기 6개와 더블보기 1개를 저질렀다.
 이븐파를 친 김미현(29·KTF)도 공동 11위에 포진, 대회 2번째 우승을 넘겼다.
 박희정(25·CJ)은 합계 4언더파 공동 14

위를 달렸고, 문수영(22)과 재미교포 김하나(23)는 합계 3언더파 141타로 공동 17위.
 작년 대회 우승자인 강수연(20·삼성전자)은 첫날 부진한 성적을 낸 데 이어 이날 전반 홀을 마친 뒤 목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신수 2경기 연속 방망이 침묵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2경기 연속 침묵을 지켰다.
 추신수는 20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탬파베이 데블레이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4타수 무안타, 볼넷 1개를 기록했다.

18일 미네소타전부터 2경기 연속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고 시즌 타율은 0.294에서 0.278(72타수 20안타)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2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탬파베이의 우완 선발 팀 코코란으로부터 볼넷을 골라 출루했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을 밟지 못했다.

7회 2사에서는 2루 땅볼로 물러났고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9회 1사 1루에서도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다시 2루 땅볼에 그쳤다. 클리블랜드는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좌완 제이미 사우스의 호투에 힘입어 5-3 역전승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고, 봉황대기야구 4강 진출 실패

광주일고가 제36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광주일고는 20일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안산공고와의 8강전에서 1-2로 석패했다.
 광주일고는 2007년 SK 신인 1차지명 선수인 상대 선발 김광현의 호투에 밀려 4강행을 눈앞에서 놓쳤다.

광주일고는 4회 수비때 연속 2루타를 허용, 1점을 잃은 뒤 기습번트와 볼넷 등으로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고 수비 에러로 1점을 추가 헌납했다.
 상대 선발 김광현의 쾌속투에 밀리던 광주일고는 8회말 최민호의 역전 찬스를 잡아냈다.
 광주일고는 0-2로 뒤진 8회 조성원이 볼

넷으로 출루한 뒤 박진섭의 우전안타와 상대 실책을 엮어 1사 2,3루의 역전 찬스를 만들었고 윤정우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안겼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더 이상의 추가점을 얻어내지 못했다.
 광주일고 9회에도 전준수의 우전 안타와 김다빈의 희생번트에 이은 김남석의 볼넷으로 2사 1,2루의 역전 기회를 엿보였으나 '특급타자'인 4번 김강의 삼진 아웃으로 막판 역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